

# Global Goings-on

## WHO

### WHO,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결성하다

- 6월 29일, WHO는 급속한 인구 고령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결성함.
  -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저개발국가들의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음.
  - 205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 2십억의 80% 이상이 중, 저소득 국가에서 살고 있을 전망이다.
  -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의 목표는 노인들이 능동적이고 건강한 사회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창출하는데 있음.
- 노인들의 사회 기여
  - 그 동안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연금과 헬스케어의 수요 증가가 정부의 정책에 미치

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었다면 WHO는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더 강조하려 하는 것임.

- WHO 고령화 생활과(Department of Ageing and Life Course)의 과장인 잔 비어드 박사 - “노인들은 가족과 사회에 중요하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자원입니다. 노인들의 사회 및 가정 기여는 노인들이 건강할 때, 그리고 그들의 사회개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없어질 때에야 비로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.”

#### • 적극적이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

- WHO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2006년 능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시환경의 주요 요소들을 식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됨.
- 3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들이 대중교통, 야외 공간 및 건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노인들에게 적절한 주택, 지역사회 지원 및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함.
- 위의 연구는 노인들이 능동적 사회 참여자

가 되고 나이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며 시민운동 참여와 고용에 보다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.

- 세계네트워크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들
  - 세계네트워크는 위에 제시된 원칙들을 근간으로 하지만 동시에 참여 도시들에게 지속적인 실행, 평가를 요구하여 개선의 길을 열어 놓았음.
  - 세계네트워크의 회원도시들은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.
  - 지난 12월 세계네트워크 가입요청이 시작된 이래 WHO에는 많은 응답이 오고 있으며 현재 많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들이 공식적 가입절차를 마친 상태.
  - WHO는 프랑스 정부, 아일랜드 고령복지네트워크, 슬로베니아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와 협약을 맺어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합의함.
  - 중국 고령화 위원회 또한 국가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캐나다의 5개 주 역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.
  - 네트워크 최초 가입 도시는 뉴욕이며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씨는 6월 29일 최초로 회원증을 수여 받았음.

2010년 6월 29일 / WHO News

<원문 링크: [http://www.who.int/mediacentre/news/releases/2010/age\\_friendly\\_cities\\_20100628/en/index.html](http://www.who.int/mediacentre/news/releases/2010/age_friendly_cities_20100628/en/index.html)>

## 멕시코

### 멕시코의 모성 건강

- 산 크리스토팔 데라카사스에 있는 가장 큰 병원 밖에는 다채로운 색깔의 전통 복장을 한 여성들이 의사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음.
  - 대부분이 임신한 여성이거나 유아를 등에 업고 있음.
  - 한 임신부는 자신의 분만 시 침대가 없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음. 환자들로 들끓는 이 병원에서는 흔한 일임.
  - 치아파스 주의 두 번째 도시인 이 곳에서는 분만 중이나 분만 후 고혈압, 빈혈, 감염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함.
  - 목적했던 병원 바로 앞에서 먼 여행길에 지쳐 그만 숨을 거둔 임신부도 있었음.
- 1990년 이래 멕시코의 모성 사망률은 36% 감소했으나 남미 국가들 중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함.
  - 특히 멕시코에 사는 인디언과 남쪽 지방의 극빈자들에게서 문제는 더 심각함.
  - 치아파스, 오악사카, 구아레로 주의 임신부들의 분만 시 사망률은 멕시코 평균보다 70% 높음.
  - 원주민들의 모성 사망률은 일반인들의 세 배.
  - 이 모든 사망들은 예방이 가능했음.

- 멕시코의 임신부들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교통임.
  - 의사에게 가려면 차, 운전자, 연료, 그리고 남아 있는 가족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함.
  - 게다가 가장 가까운 마을 병원까지 가는 도로도 종종 위험하고 속도를 낼 수 없음.
  - 그 결과 많은 여성들(인디안 여성 3분의 1을 포함)이 아무런 의료진의 도움 없이 출산함.
- 또 다른 어려움은 병원에서 겪게 됨.
  - 의료 검진과 의약품들은 멕시코 극빈자들에게 지나치게 비쌌.
  - 또한 진료 및 케어의 질도 낮음: 도시에서의 모성 사망의 40%가 잘못된 약품, 수술 실패 등의 의료 사고로 인한 것임.
- 끝으로 문화적, 사회적 어려움도 있음.
  - 많은 여성들이 남성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남성위주의 보수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를 꺼리기 때문임.
  - 원주민 여성들은 스페인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음.
  - 일부 의사들은 시골에서 온 환자들을 천대하여 환자들을 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음.
- 조산원과 피임법에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많은 여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.
  - 스페인 정부와 빌 게이츠, 까를로스 슬림 등은 중앙 아메리카와 남부 멕시코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건의료비로 1억5천만

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발표했음.

- 모성 사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간시설과 보건, 교육에 투자하는 것임.

2010년 6월 24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 링크: [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6439044?story\\_id=16439044](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6439044?story_id=16439044)〉

## 유럽

### 유럽, 은퇴 연령을 높일 것인가?

-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유럽의 인구는 더디 성장하고 있으며 유럽인의 평균 연령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음. 이 것이 유럽의 관대한 연금시스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.
  - 지난 수요일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사회주의 모델(social model)을 위협하는 이 흐름에 대한 대응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인들의 근로 정년이 연장될 수 있음.
- 지난 여름 유럽연합의 인구는 5억을 돌파했으나 현재는 정점에 이른 상태로 40년 후엔 현재 수준에서 폴란드와 그리스의 인구를 합한 수인 5천만 명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.
  - 평균 수명은 10년마다 2, 3년씩 증가해 가고 있음.
  -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

하 인구의 두 배 정도 될 전망.

• 이와 같은 사회적 시한 폭탄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함.

- 현직 근로자들이 은퇴한 근로자들의 퇴직 연금을 지불하는 유럽의 pay-as-you-go 시스템은 그 규모가 GDP의 7% 이상이며 이 규모는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음.

- 만약 근로자가 퇴직자의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속된다면 현행 연금 시스템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임.

• 이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지난 수요일 정책제안녹서(green paper of policy ideas)를 발표하고 공공연금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해 전 유럽 토론회를 열었음.

- 본 녹서에서는 연금개혁(노동시장, 사회복지시스템(social systems), 공공재정을 포함한 개혁)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며 한 두 가지를 고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산업, 정부, 개인 모두가 이 문제를 긴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촉구함.

• EU고용사회보장위원회(E.U.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Commission) 위원인 라스 즐로 안도르는 기자회견에서 현 상태로는 연금이 지속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함.

- 그는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 왔지만 경기침

체로 인해 인구 변화가 미칠 악영향이 더 커졌다고 말함.

- 2012년부터 유럽의 근로자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며 유럽의 선택은 연금 수급액을 줄이든지, 연금기여액을 높이든지,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일하는 것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함.

\* 안도르씨는 은퇴연령을 늦춰야 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은퇴연령의 연장만이 효과적 연금개혁의 단일한 열쇠로 떠오를 것임.

- 유럽인들이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일을 더 오래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안도르씨는 말함.

- 유럽인들은 2008년 61.4세에 은퇴하여 2001년 59.9세 보다 다소 늦춰짐.

- 유럽 안에서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루마니아는 평균 은퇴 연령이 55.5세이며 아일랜드는 64.1세임.

•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잠재적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법적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중임.

- 아일랜드는 2028년까지 은퇴연령을 68세로 올릴 계획이며 UK는 2046년까지 68세로 올릴 계획임.

- 스페인과 독일 정부는 현 65세인 은퇴연령을 67세까지 올릴 구상을 하고 있음.

- 그러나 이런 개혁의 움직임은 오늘날의 경제위기에서조차 민감한 사안으로 프랑스

가 현 은퇴연령을 60세를 2018년까지 62세로 올리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임.

- 독일 맨하임 노령경제연구소의 마틴 개스체씨는 유럽이 네 가지 방향의 연금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함.

1. 연금 기여액을 높일 것
2. 연금 수령액을 낮출 것
3. 사립연금을 권장하고 pay-as-you-go 연금의 몫을 줄일 것
4. 은퇴 연령을 높일 것

- 연금은 다가올 세대에 의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럽의 저조한 출산율은 이러한 연금 시스템의 지속성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.

- 일과 자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힘들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전 세대보다 자녀를 낳지 않고 있다고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정책센터의 분석가인 소티리아 테오

도로포울로우씨가 말함.

- 테오도로포울로우씨는 여성은 그 잠재력이 풍부한 자원으로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여성들이 유급 휴가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함.
- 그녀는 또 프랑스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노르웨이와 같이 진보적인 가족고용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출산율과 직장 여성의 수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음.

- 정책입안자들이 유럽의 인구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든지 유럽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위대한 업적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.

- 그러나 은퇴파티를 조금 미뤄야 할 것임.

---

2010년 7월 8일 / Time

<원문 링크: <http://www.time.com/time/business/article/0,8599,2002296,00.html>>